

서울地下鐵工事와 岩盤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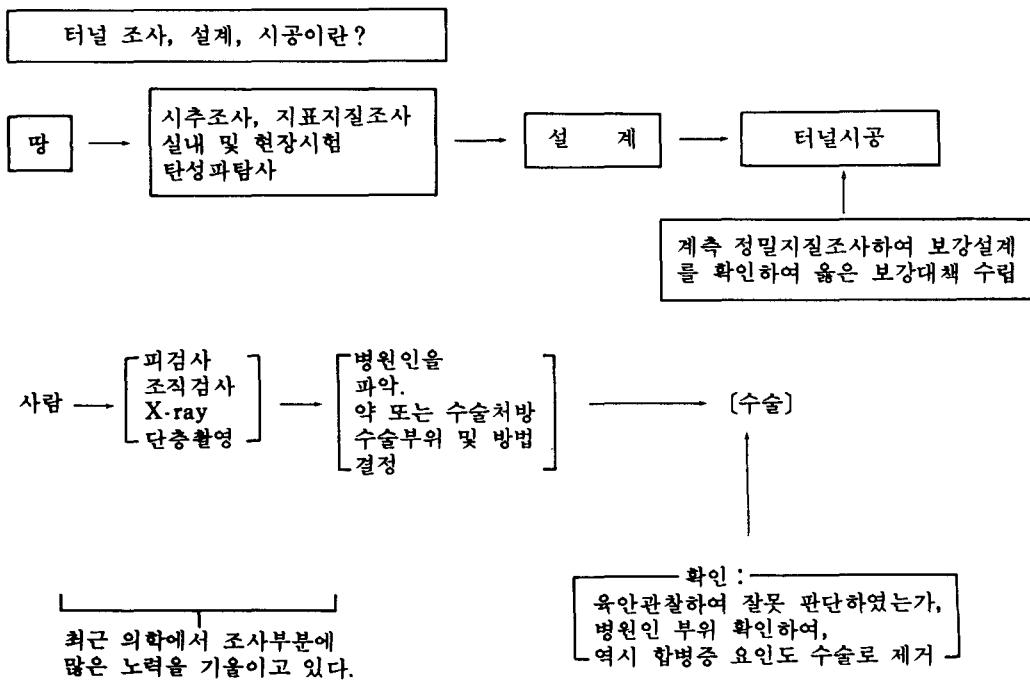
Geological Structure Related to Seoul Sub-way Construction.

李壽坤*

On the Sub-way Construction It is important to Survey in advance the Geological Structure and also to make the Engineering Geological map this paper deseribes the feature of Geological structure of Seoul Area and analyses the recently occured Rock falling accidents.

NATM Tunnelling always must be done with careful observation and measurement of the geological condition.

1. 터널의 조사, 설계, 시공간의 상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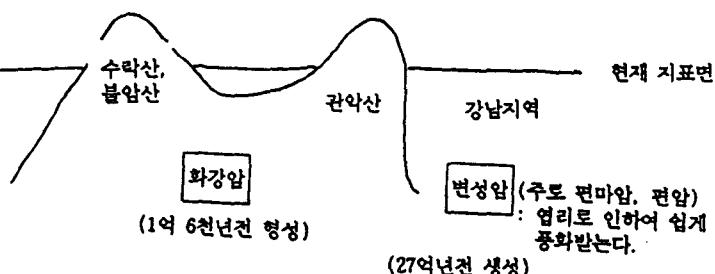
*韓國資源研究所 責任研究委員, 理學博士

2. 서울의 지반특성과 지하철 공사중 붕괴특성

서울의 지반특성

① 형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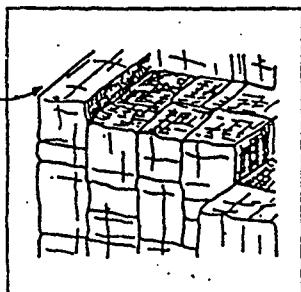
풍화와 침식으로
없어진다.



②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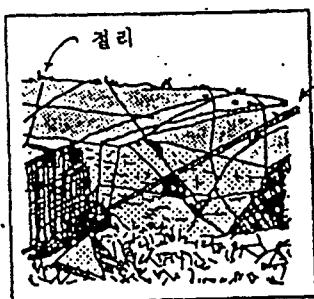
암반내의 불연속면의 발달

절리



(a) 규칙적 (예 : 화강암)
: 소규모 암석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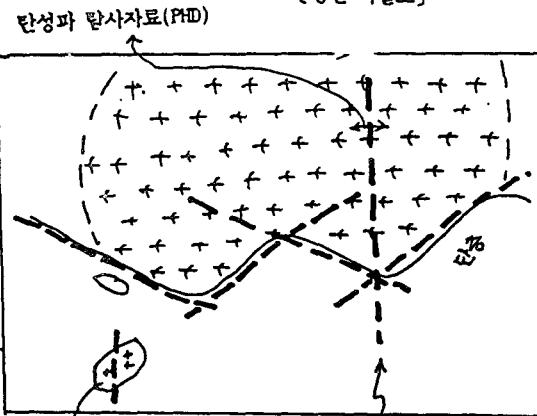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질이 비교적 균등 • 풍화심도가 압다 : 토층 수 두께 • (토층은 화강풍화로로 silty sand) • 절리가 규칙적이고 절리는 직선적이다.
연장성이 보통이다. • 단층의 발달은 적은 편이다. • 절리고 인한 부분적인 붕괴 • RMR_{soil}가 높아서(파쇄가 적다)
TEM 터널공사 용이. 터널 굴착수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질이 매우 불규칙하다.
(철저한 지질조사 요망) • 풍화심도가 약간 깊다.
(clayey sandy silt). 헥석발달. • 절리가 불규칙하고
절리는 연장성이
짧고 간혹된다. • 절리 및 단층의 발달이 심하다. • 단층으로 인한 대규모 붕괴 • RMR_{soil}가 낮아서(파쇄가 심해서)
발파로 터널공사.
터널 굴착 난공사. |
|--|---|



(b) 불규칙적 (예 : 편마암)
: 소규모 · 대규모 암석붕괴

항공사진, 위성사진에서
대규모 단층, 중규모 단층을
파악하여 터널공사시에
중요한 참고자료.

[평면 지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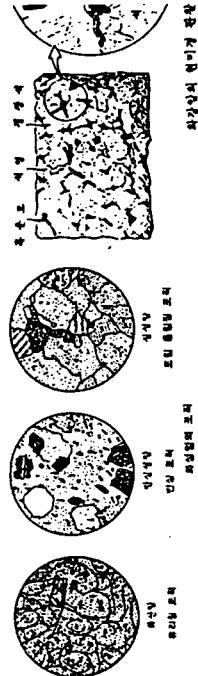
열수변질이 심하여
지하에서 소규모 단층 많음듯.

대규모 추가형 Fault(중량천 Fault)
지하철 7호선이 따라간다.
Tunnel alignment 선정시
되도록이면 대단층은 피할것.
터널안전, 공사지연, 보강과다 가능성
(부분단면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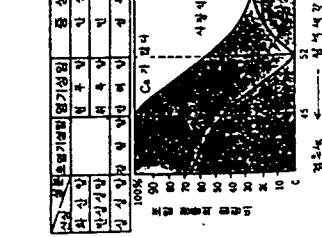
(1) 화강암

- (1) 성인 및 특성
 · 지하의 magmatic 기지 표면으로 끌어이어서 고열된 것
 · 암석이 절경화되고, 동화성인 특성
 · 관입형태에 따른 분류
 ① 치아기 치아기 깊은 구에서 서서히 고열된 것으로, 일자기 된다.
 ② 관입암 관입암으로 울타리나 소나 관을 둘러서
 관을 암수선형으로 확장된다. 치아기 깊은 구에서 신속히 고열된 것으로, 일자기 된다.

- (4) 분류
 ① 구조(texture) ... Coarse- medium- fine-grained 등으로 이루어져
 ② 광물성분(mineral Content) ... 석영, 티타늄, 광운암 등으로 이루어져
 ③ 크기는 암석이 고열된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크기는 암석이 고열된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화강암의 흔이기 분류
 1. 대형 흔이기
 2. 중형 흔이기
 3. 소형 흔이기



화강암의 흔이기 분류
 1. 대형 흔이기
 2. 중형 흔이기
 3. 소형 흔이기

(2) 화강암의 물학적인 특성

- 1) 관입암
 • 암석 ... 구조물을 일자들이 서로 엇물리고 있는(Interlaced) 구조이며
 암석의 강도는 크고, 또 암석간에 공간(pore)이 비교적 적어
 암석이 기력화되면 암석은 탄성변형(Elastic deformation) 한다.

- 암반 ... ① 암반내에서 암석의 변화가 적으로 물리적인 성질이 분출암에
 비해서 급격하다.
 ② 깊은곳에서 암석 성장으로 높은 residual stress(현상용)

- 이 흔이기 → stress relief joint 발생

- ③ 지표면에 노출되어있으면 풍화를 받는다 → 각 치역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풍화심도와 풍화률이 다르다.

- ④ 열수변형(Hydrothermal alteration) 발생.

2) 분출암

- ① 열수변형

- ② 지표면에서 세로 다리를 기여하는 흔이기 형성된다. 그러므로

- 공구이 많은 밀도가 낮은것(강도 매우 악함)과 공구이 적은 밀도가 큰 것
 (강도 강함)이 흔히되어서 암석도 다양하게 변하며, 물학적인 성질도
 다양으로 관입암 저역보다도 첨두한 차별화가 오류된다.

- (쉽고) 공구이 적은 흔이기는 하중시 공구이 일상으로 초기변형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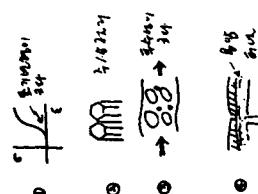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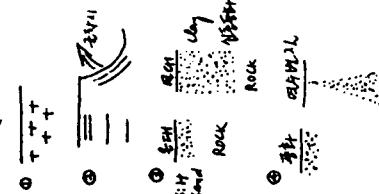
- ③ 현무암(basalt)에서 특이한 cooling(tension) fracture 터널(= column).

- ④ 암암(egglominate)에서의 푸수성이 큰 성질.

- ⑤ 간혹 용암터널(lava tunnel) 발생하여 큰 공간존재.



3. 암석의 분류 및 공학적인 특성



(2) 변형의 공학적인 특성

(1) 흔적법
(1) 층층구조

① 동역학적층(동역변형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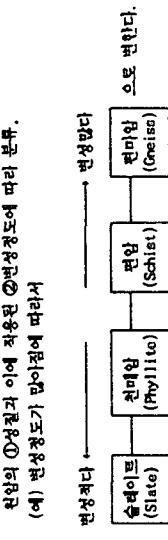
- 터의 희석, 희석, 변형압력이 지속에 따라 동역학적층이 변형된다.
이 허고 희석은 또다시 다른 종류의 흔적으로 변형된다.

② 경축변형층.

드래인(drain)의 경축하는 부분에 주부적으로 흔적이 변형됨
(나) 폭포
변형압력에 일정한 방향으로 틀어이 비행된 염리(foliation)가 있다(염리의 대체로는 미네랄의 친수성의 강약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나) 규화(Quartzite)은 염리화물이다.

(3) 운모기준
흔적의 ①정질과 이에 적용된 ②변형정도에 따라 분류.

(나) 변형정도가 많아짐에 따라



* 흔미암 : 일도가 굽고, 대부분 흔적으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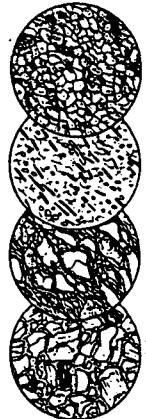
* 흔암 : 염리구조가 무작위며, 염리면으로 잘 개된다. 흔자기 품 차다.

* 흔이암, 흔레이트 : 속으로 흔자를 구별못할 정도로 차다.

* 흔운암 --(주로 세밀한 흔적이 흔적변성 밀이서 겹은 흔적의 치밀한 흔적이다)
변한것(= 이전의 흔자) : $S_{1,2}$

③ 흔적 : 흔적이 흔리를 지나므로 이동층적인 공학적 특성을 지닌다.
습지와 풍蝕한 영향으로 하중 기하학 강도는 높아지며 흔적이 차고,
흔적의 수직한 영향으로 하중 기하학 강도는 높아지며 흔적이 얕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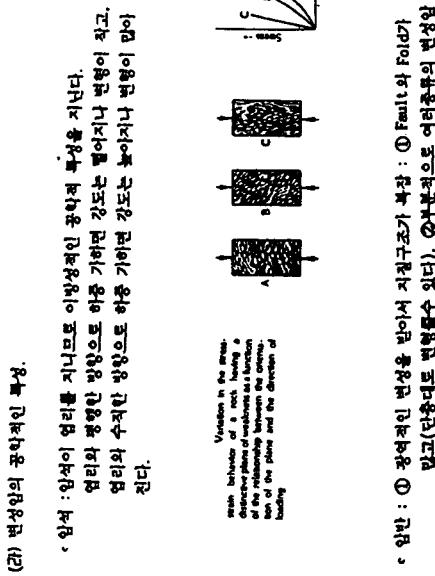
④ 흔적변형층 : 흔적하는 틀에 따라 흔적층은 흔적층과 흔적층을 이루는 흔적층을 형성하는 틀이다. 흔적층으로 흔적층과 흔적층의 흔적층은 나온다(암반의 이동층 흔적).



변성암의 흔적	전속 흔적	종속 흔적
1. 흔적	0. 흔적	0. 흔적
2. 흔적	0. 흔적	0. 흔적
3. 흔적	0. 흔적	0. 흔적
4. 흔적	0. 흔적	0.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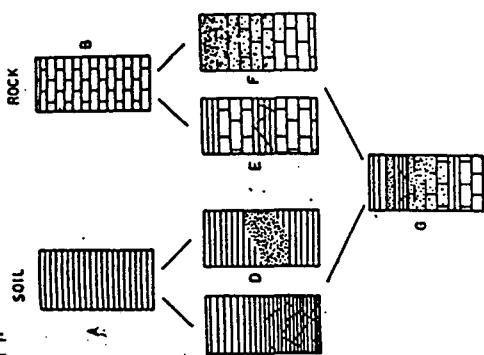
변성암의 흔적 : 흔적 - 흔적 - 흔적 - 흔적

변성암의 흔적	전속 흔적	종속 흔적
1. 흔적	0. 흔적	0. 흔적
2. 흔적	0. 흔적	0. 흔적
3. 흔적	0. 흔적	0. 흔적
4. 흔적	0. 흔적	0.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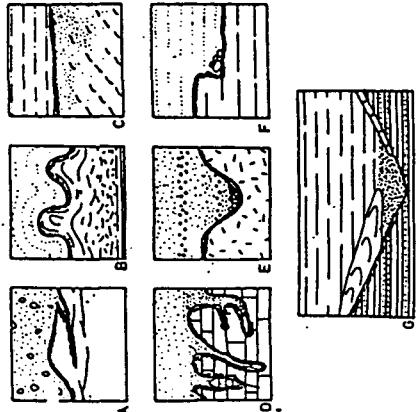


풍화특성

이 수학한것은 아닙니다.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the geological factors in soils and rocks which influence their formation behaviour. A and B are idealized representations; C, D, E and F produce the geological realities of variability; G combines soil and overburden in contact at rockhead with underlying bedrock.



(a) (b)

풍화의 풍화

풍화단면의 특성 (한국화강암)

(1) 풍화 잔류토층이 5~10m 이내에 분포하는는데 비교적 척은 편입니다. 이는 토층의 침식율이 구심화(?) 때문입니다. (예 : 경시 25° 시험에서 2.3cm/년). 일반적으로 토층은 CW 풍화암을 silty sand입니다.

(2) 지표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풍화정도가 감소하면서 Weathering Front(암석과 토층의 풍화경계선)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이 Weathering Front는 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① 한반도 산사대가 거의 다 Weathering Front에서 발생한다. 이는 토층과 암반의 금속한 투수계수의 차이 때문이다.

② 암석과 토질 경계선(암반선)을 있는 것이 토목공사(), 토축 기초설계 시 pile을 설치할 경우 매우 중요하다. 암반선은 일변적으로 수평성을 떨어지나 간혹 불규칙하게 발달하는 경우도 많다.

3) 퇴적암 지역에서 Corestone(핵석)이 풍화대에 드물게 관찰되어 Gradual Weathering Profile이 많다. Corestone이 발달하는 지역에서 토목공사() pile 등의 기초를 위한 Boring(시추) 조사에서 토질과 암반층을 구별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풍화단면의 특성 (한국화강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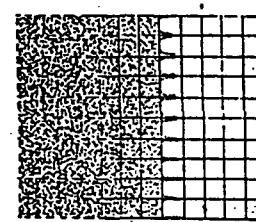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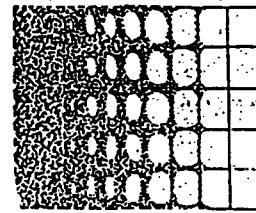
(1) 풍화 잔류토층이 5~10m 이내에 분포하는는데 비교적 척은 편입니다. 이는 토층의 침식율이 구심화(?) 때문입니다. (예 : 경시 25° 시험에서 2.3cm/년). 일반적으로 토층은 CW 풍화암을 silty sand입니다.

(2) 지표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풍화정도가 감소하면서 Weathering Front(암석과 토층의 풍화경계선)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이 Weathering Front는 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① 한반도 산사대가 거의 다 Weathering Front에서 발생한다. 이는 토층과 암반의 금속한 투수계수의 차이 때문이다.

② 암석과 토질 경계선(암반선)을 있는 것이 토목공사(), 토축 기초설계 시 pile을 설치할 경우 매우 중요하다. 암반선은 일변적으로 수평성을 떨어지나 간혹 불규칙하게 발달하는 경우도 많다.

3) 퇴적암 지역에서 Corestone(핵석)이 풍화대에 드물게 관찰되어 Gradual Weathering Profile이 많다. Corestone이 발달하는 지역에서 토목공사() pile 등의 기초를 위한 Boring(시추) 조사에서 토질과 암반층을 구별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Typical examples of the (a) gradational and (b) corrasion weathering profiles.

암석의 험형 (불연속면의 빌입)

불연속면 (discontinuity fracture)

(1)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 1) 일제통합 : 철리의 빌입이 있다.
- 2) 험연 : 험연에서도 철리의 빌입이 짐작할 수 있다.

(2)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3) 철리의 험연 : 일제통합에 구획으로 쪼개었을 때 철리를 빌입하는 경우가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4)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5)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6)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7)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8)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9)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0)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1)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2)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3)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4)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5)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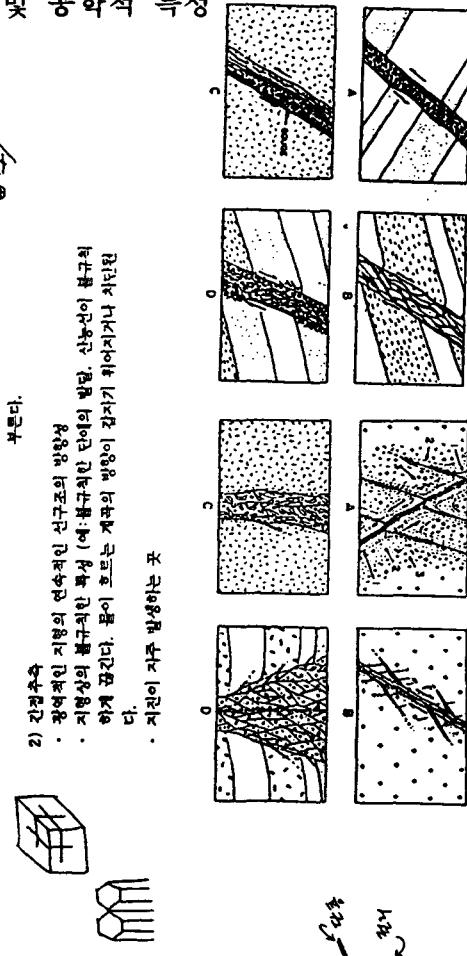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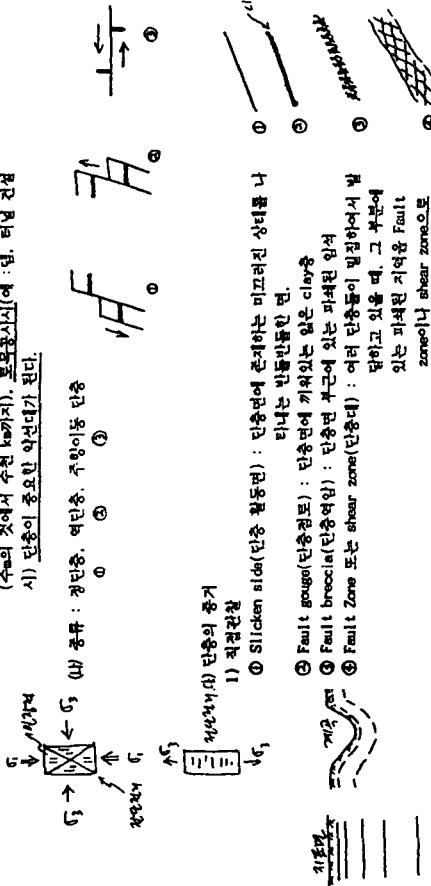
(16)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7)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18) 험연 (Joint) : 일제통합이나 철리발달의 특징이 있다. 험연은 수면에서 수면에 걸친다.

(2) 단층 (Fault)

정의 : 불연속면을 따라서 한계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는 불연속면을 단층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철리의 비행과 연동성이 있는 (수면의 것에서 수면 수면 깊이), 토목조사(예: 담, 척수 터널 등) 단층이 중요함이다.



(1)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2)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3)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4)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5)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6)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7)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8)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9)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0)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1)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2)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3)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4)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5)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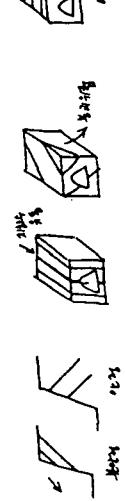
(16)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7)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18) 철리의 빌입 : 철리의 빌입은 철리의 빌입이다.

불연성면의 일반공법적인 특성

(1-1) 철화(충전포형) : 도로나 텁, 태양광판, 일체의 낸을 이루기 시킨는
주제이며, 흙, 시멘트, 콘크리트 등과 같은 시공재를 이용하는
② 흙과 같은 유기물을 첨가하여 철화된다.
③ 시멘트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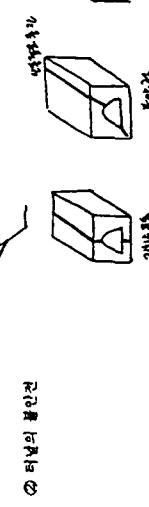


(2-1) 단층 : 흙성이 큰 물질로부터 물이 흐르는 시설로 물이 통하는
① 유포로서 작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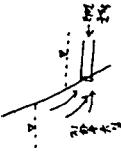
(2-2) 단층 : 터널을 통하는 물에 단층을 안내해 흙 경우 지하수 흐름의 차이가

① 시변률인천



② 터널을 통하는 물에 단층을 안내해 흙 경우 지하수 흐름의 차이가
급격히 차지하는 지하수가 터널 내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여 단층, 계단
파괴된다.

* 이러한 일례가 서울 지하철이나
고장된 것이 대동 pag에 수록되어 있다.



* 서울지하철에서 단층으로 지하수 침입 사례

(1-1) 철화(충전포형) : 도로나 텁, 태양광판, 일체의 낸을 이루기 시킨는
주제이며, 흙, 시멘트, 콘크리트 등과 같은 시공재를 이용하는
② 흙과 같은 유기물을 첨가하여 철화된다.



단층이 발생한 후에는

① 배수구가

② 터널 상부

③ 지하수 유입이 벌춘다.

터널 상부

④ 터널 상부

⑤ 터널 상부

⑥ 터널 상부

⑦ 터널 상부

⑧ 터널 상부

⑨ 터널 상부

⑩ 터널 상부

⑪ 터널 상부

⑫ 터널 상부

⑬ 터널 상부

⑭ 터널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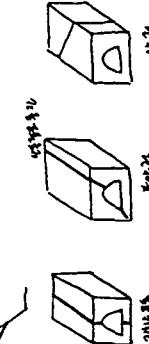


- ① 터널구조의 단층의 틈에 있는 첨보를 위한 Fault(파쇄면)가 험하고
② 터널구조의 틈에 있는 첨보를 위한 Fault(파쇄면)가 험하고 터널구조를 이기시
③ 터널의 기초처리를 단층과 함께 단층과도 병동임이 일 수
④ 단층(Fault zone)에 기초처리를 놓 경우 지지력이 매우 악하다.
터널구조의 틈에 있는 첨보를 위한 Fault(파쇄면)가 험하고, 지하수 유입이 단층과 터널 구조
⑤ 터널을 빙어 힘이나 빙어 소모비용이 크다.



(2-1) 단층 : 터널을 통하는 물에 단층을 안내해 흙 경우 지하수 흐름의 차이가

① 시변률인천



② 터널을 통하는 물에 단층을 안내해 흙 경우 지하수 흐름의 차이가
급격히 차지하는 지하수가 터널 내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여 단층, 계단
파괴된다.

* 서울지하철에서 단층으로 지하수 침입 사례

(1-1) 철화(충전포형) : 도로나 텁, 태양광판, 일체의 낸을 이루기 시킨는
주제이며, 흙, 시멘트, 콘크리트 등과 같은 시공재를 이용하는
② 흙과 같은 유기물을 첨가하여 철화된다.



단층이 발생한 후에는

① 배수구가

② 터널 상부

③ 지하수 유입이 벌춘다.

터널 상부

④ 터널 상부

⑤ 터널 상부

⑥ 터널 상부

⑦ 터널 상부

⑧ 터널 상부

⑨ 터널 상부

⑩ 터널 상부

⑪ 터널 상부

⑫ 터널 상부

⑬ 터널 상부

⑭ 터널 상부

⑮ 터널 상부

⑯ 터널 상부

⑰ 터널 상부

⑱ 터널 상부

⑲ 터널 상부

⑳ 터널 상부

㉑ 터널 상부

㉒ 터널 상부

㉓ 터널 상부

㉔ 터널 상부

㉕ 터널 상부

㉖ 터널 상부

㉗ 터널 상부

㉘ 터널 상부

㉙ 터널 상부

㉚ 터널 상부

㉛ 터널 상부

㉜ 터널 상부

㉝ 터널 상부

㉞ 터널 상부

㉟ 터널 상부

6. 터널설계, 시공의 국내 현실과 개선방안

(터널 설계)

가. 시추 지질조사

① 시추 비용의 현실화

- 『토목구조물』 건설이 제일 비싸게 고려하고 지질조사 비용은 공연한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
 - 발주단가도 비현실적으로 적은데 외주관리로 인하여 실제 현장 시추단가는 매우 열악하다.
 - 적정규모의 시추장비 및 부대장비 확보 필수화
 - 시추기사의 지질지식 유무에 따라 조사결과에 지대한 영향
 - NX, BX 시추코아 크기의 차이에 따른 암반추정의 차이를 감안
- 않아고 시추 주상도의 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BX가 NX 시추보다도 RQD%적다)

(가능하면 NX로 규격 통일이 바람직)

극단적인 경우에 기본설계 시추자료와 실시설계 시추자료가 수m 정도의 암선 차이가 아니라 암등급 차체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있다.(지보, 굴착조건이 지질시추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되는 데도 불구하고…)

② 지질조사 품셈 적용의 현실화가 안된는데 원인 : 풍화토, 풍화암에 대한 점토품 적용 → 사질(화강 풍화토) 토 적용이 합리적 토공에서는 풍화토, 풍화암에 대한 품셈 명문화 되어 있으나 시추조사에는 구분이 점토로 되어있는 모순제거 → 『낮은 시추단가』 때문에 암반선이 지표로 올라가서, 위험 터널설계가 될수도 있다. 지하토목공사시 취약부로 인식되는 풍화암의 시료채취에 대한 적절한 품셈적용과 시료 채취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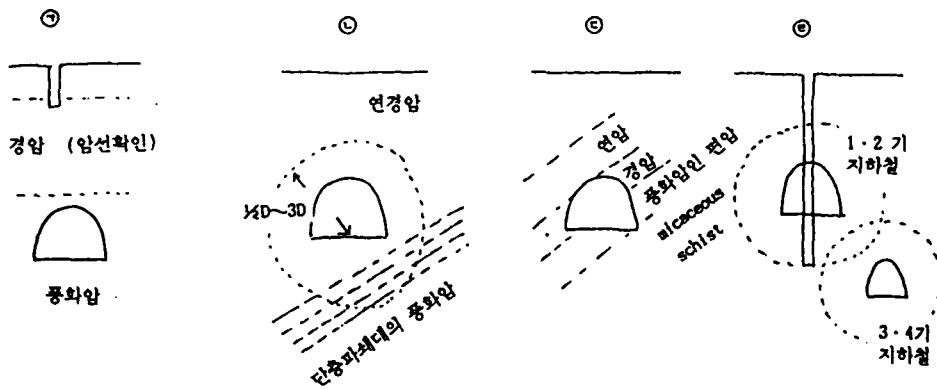
③ 암판정 개념의 혼돈 (지질, 토질, 구조 기술자간에)

- 건설부 표준품셈의 모순과 용어의 불확실성 제거
(예 : 시추기술자 : 연암 → 『연암석』 의미로 해석
구조설계기술자 : 『연암』 → 『연암반』 의미로 해석우려
- 암판정의 정량화
- 암반역학 개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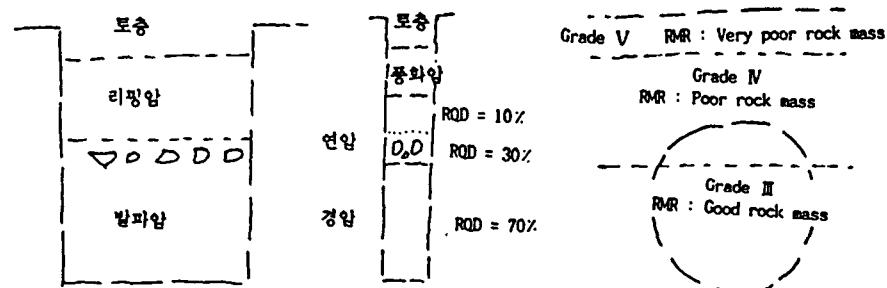
④ 시방의 현실화

시추심도의 부족 : 터널 구간의 경암 1m, 또는 Invert level 하의 2m까지 → 터널의 응력영향권까지는 시추 바람직하다. → 핵석, 단층파쇄대, 열수변질대를 파악할 수 없다.

- ① 열수변질대에서는 특히 주의
- ② 단층 파쇄대
- ③ 복잡한 변성암 지역
Invert 에서 Steel rib의 지지력 확보의 문제점
- ④ 차후의 신설 지하철 시공, 설계계획에 큰 도움이 됨 기준 및 신설 지하철이 중첩되는 경우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대책수립한다.(신설 노선선정의 변경).



⑤ 경험의 부족한 설계자의 임반역학적 Engineering 개념이 부족



굴착목적(토공)

강한 암반이 다수, 약한 암반이 부분적이면 강한 암반 기준으로
「상항」설계

(시추자료) ←→ 터널지보, 건물기초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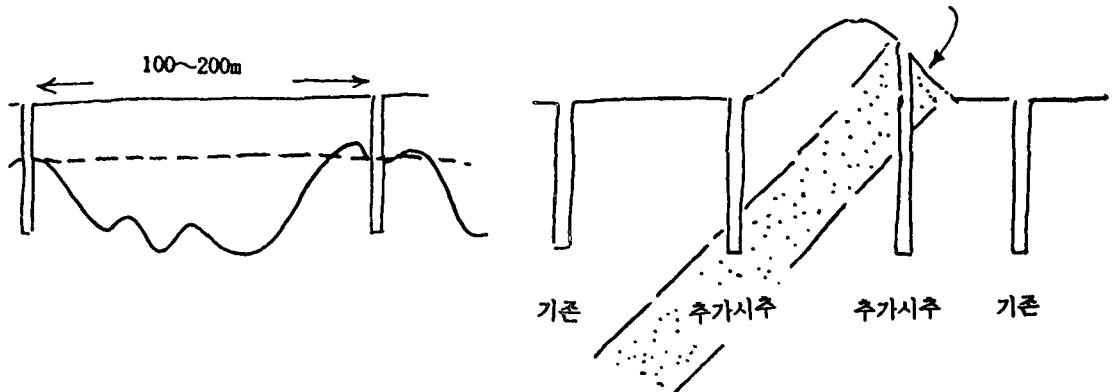
강한 암반이 대다수이고 약한 암반이 부분적이라도 약한 암반 기준으로 「하향」설계

같은 지질조건이라도 기술자가 토목공사의 종류(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일률적으로 지질주상도 결과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오산

⑥ 시추조사의 체계적 계획 수립 부족

시추간격은 예비설계시 200m 간격, 실시설계시 100m 간격으로 수행하는 데 간격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률적인 시추간격은 시정요망, 인공위성, 항공사진이나 지질도, 지형도, 주변의 기존 시추자료, 지표의 함선노두로서 거시적으로 지질구조를 판단한 후에 나쁜 위험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만 더 집중적으로 (시추 간격 좁게) 시추하고 다른곳은 현행대로 수행, 탄성파 탐사 가능하면 병행하면 유익, 또한 차후에 수직구나 정거장등의 개착구간에서 3차원적인 지질자료나 나오므로 보완하면 현행 200~100m 시추간격은 조금만 계획성 있게 시추하면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듯 하다.

단층이 사전 지표지질조사에서
인지되었다.



일률적인 시추간격

위험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만 더 집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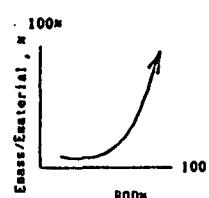
나. NATM 설계 입력자료의 허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물성치가 추정치이므로 (불확실성을 내포) 시공설계가 아닌 예비설계(가설계) 개념으로 FEM에 의한 실시설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입력자료중 E(탄성계수, 변형계수)가 제일 예민한데, 조사지역의 지질특성에 부합되는 완벽한 E추정은 불가능하다. (E 자료의 한계)

Emass 추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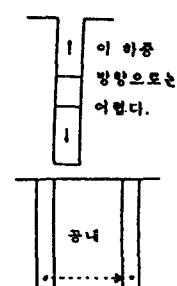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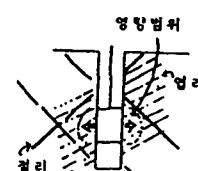
① 암석시험 자료 (Ematerial)로서 경험시 자료로서 추정

- Ⓐ 실내시험수치의 정확도 (예 : 힘수비, stress level 등에서 실내시험과 현장 조건의 상이함) : 측정한 실내시험 조사 서술 꼭 하도록 이방성인 암석은 편리(총리)와 하증방향과의 관계언급
- Ⓑ 경험치가 국내 지질특성에 부합되는가
(Emass /Ematerial과 RQDX의 관계식 -
- Ⓒ 같은 연암이라도 화강암, 편마암의 변형수치가 크게 다른 것 고려



② 공내 재하시험 : 원자반 특성파악이 목적

- Ⓐ 좁은 부분만 시험 Ⓟ 이방성 영향 파악 어려움
(시험 영향범위가 적다) (화강암은 O.K. 편마암은 이방성)



③ 탄성파탐사 : 전반적인 광역적인 경향만 보여 주는 것이지 국부적인 변화는

- (예 : 단층등의 존재) 탄성파 탐사의 특성상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이 한계→

또한 Edynamic modulus > Estatic modulus 신선암에서는 차이가 비교적 적으나 풍화되면 그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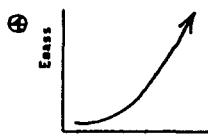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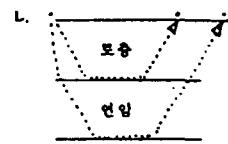
- ① 공내 탄성파탐사 : 보다 정확한 수치, 좁은 지역에서
- ② 지표탄성파 탐사 : 개략적인 수치, 넓은 지역에서 … 그러나 암층을 구분하는 점이 장점.
- ④ 암반육안 분류 (RMR, Q)로서 기존 경험치로서 추정, 역시 기존 경험치가 국내 지질특성에 얼마나 부합되는가의 의문

* 결론 : ① 어떤 방법이든 변화가 심한 암반의 전반적인 또한 부분적인 (국부적인)

“E” 파악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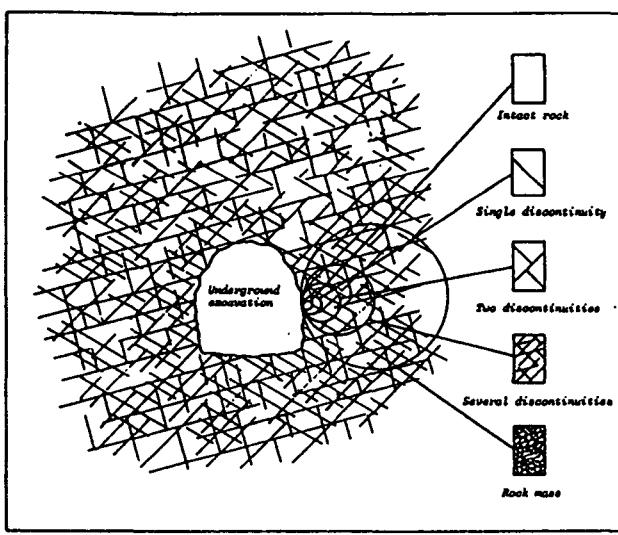
이런 약점 때문에 현장 계측, Face mapping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 ⑤ 상기와 같이 Emass 추정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설계필요 『암반(절리개념포함)』에 대한 지식없이 “E mass”수치를 잘못 판단시 오류의 우려



실내 시험

암석과 암반에서의 실험의 의미(Scale 고려)



Identified diagram showing the transition from intact rock to a heavily jointed rock mass with increasing sample size.

「RMR」 수치에 근거하여 추정된 암반의 강도지수(ϕ)

CSIR geomechanics classification of jointed rock masses

A. CLASSIFICATION PARAMETERS AND THEIR RATINGS

PARAMETER	RANGES OF VALUES				
	10 MPa	4-8 MPa	2-4 MPa	1-2 MPa	For thin, low strength joints, may be altered
1. Strength of intact rock measur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 200 MPa	100 - 200 MPa	50 - 100 MPa	25 - 50 MPa	10-25 MPa 3-10 MPa 1-3 MPa
Rating	10	12	7	4*	2 1 0
2. Drill core quality RQD	50% - 100%	75% - 50%	50% - 75%	25% - 50%	< 25%
Rating	30	17	13	8	3

	Spacing of joints	3m	1-3m	0.3-1m	50-300 mm	≤ 50 mm
	Rating	30	25	20	10	5
Condition of joints	Very rough surfaces Not movement No joint width Hard joint well rock	Shaky rough surfaces Separation 11mm Hard joint well rock	Shaky rough surfaces Separation 11mm Soft joint well rock	Smoothed out rock Separation 13mm thick Soft joint well rock	Soft gauge 15mm thick or Joints open 1-3mm Compressive joints	Compressive joints
Rating	25	20	12	6	0	0

B. RATING ADJUSTMENT FOR JOINT ORIENTATIONS

Rock and dip orientations of joints	Very favourable	Favourable	Fair	Unfavourable	Very unfavourable
Vertical joints	0.	-1	-2	-3	-4
Horizontal joints	0	-1	-2	-3	-4
Sloping joints	0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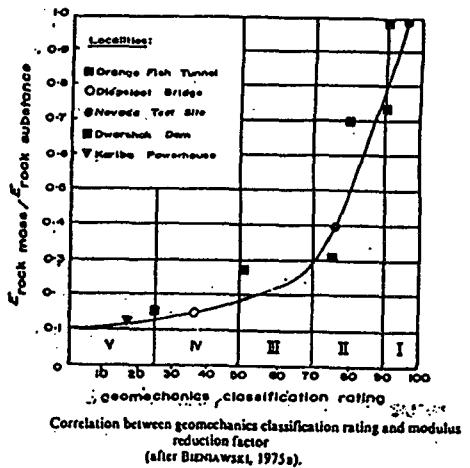
C. ROCK MASS CLASSES DETERMINED FROM TOTAL RATINGS

Rating	II	III	IV	V	VI
Class No.	I	II	III	IV	V
Description	Very good rock	Good rock	Fair rock	Poor rock	Very poor rock

D. MEANING OF ROCK MASS CLASSES

Class No.	I	II	III	IV	V
Average stand-up time	10 years for 5m span	5 weeks for 4 m span	1 week for 3 m span	2 hours for 1.5 m span	0 min. for 0.3 m span
Cohesion of the rock mass	> 300 kPa	200-300 kPa	150-200 kPa	100-150 kPa	< 100 kPa
Fraction angle of the rock mass	145°	40°-45°	30°-40°	30°-35°	130°

CLASSIFICATION OF ROCK



다. FEM 해석에서 암반내의 현장응력 분포 상태가 중요하나 역시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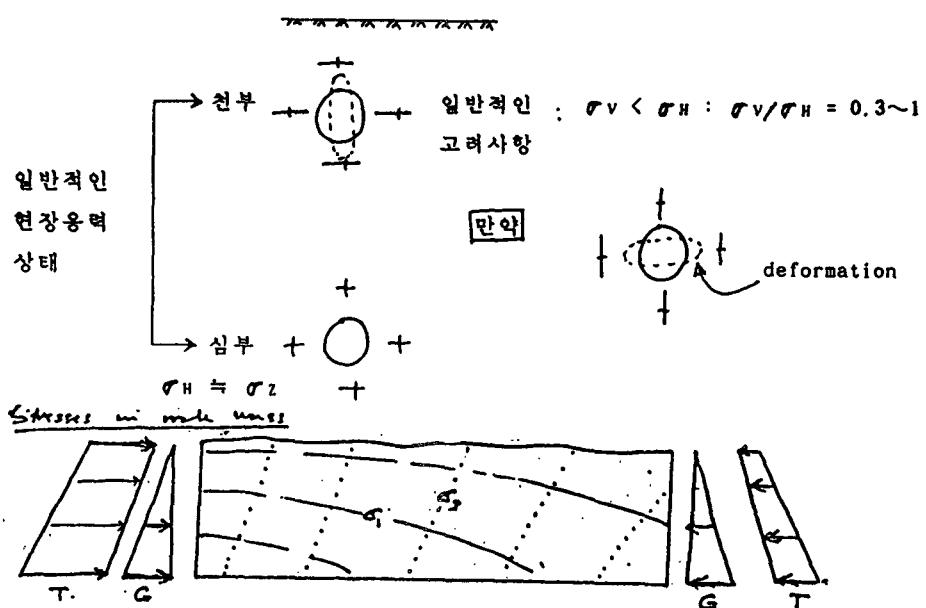
현장응력은 ① Gravitational stress : $[\mu/1 - \mu] \times \text{depth} \times \text{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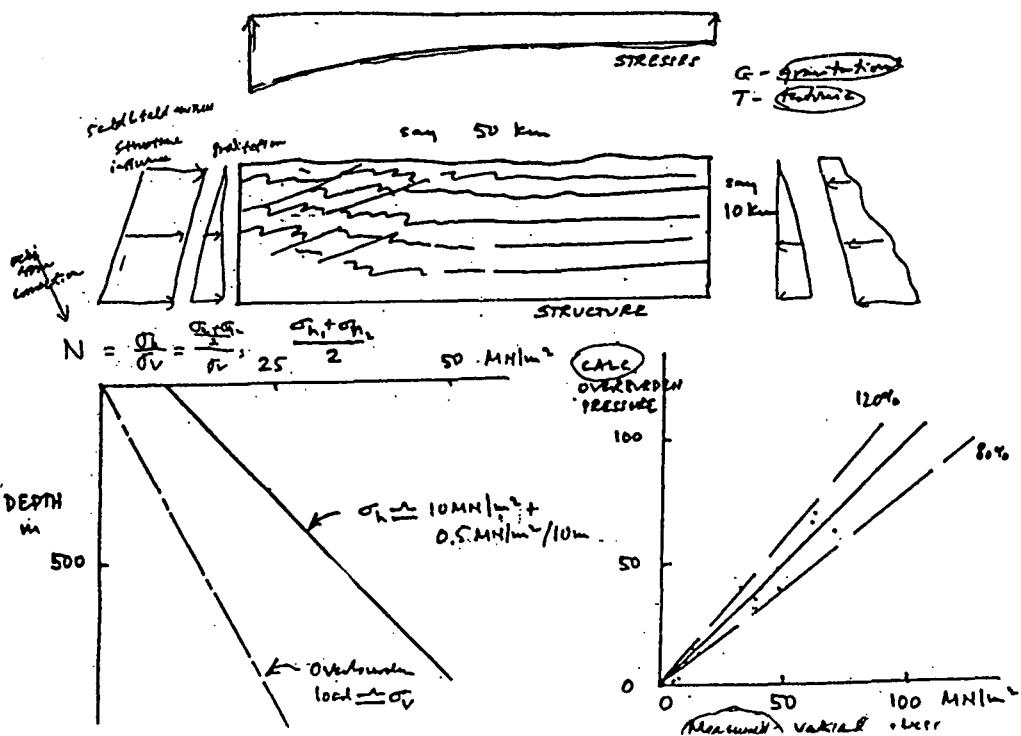
만약 μ : 포이엔비가 0.25이면 $[\] = 0.3$

② Tectonic(geological)history에 의한 stress : 현장 시험없이 추정은 곤란

* 초기 지압은 geological history (지질적인 광역적 stress)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암반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작용 : 현장 실험 방법은 복작(Hydro fracturing, over-coring)





터널시공

라. NATM 시공현실

Original NATM 개념의 5~60% 정도 이해되고 있는 게 현실

이유 : ① 시공정도(Workability의 부족) : 터널하도급

굴착 : NATM식의 보강순서에 입각한 작업 순서의 이해 부족

(예) 어떤때는 막장 굴착후 steel rib 대고, 그후에 shot crete 치므로 터널 상부암반의 이면이 많이 되어 지보가 많아지게 된다.

라이닝

② Face mapping (또는 현장시험)에서의 평가에 의한 보강보완이 즉시로 안된다.

③ 계측 : ⑦ 설치시기 놓치고 (지연)

㉡ 시공 나쁜 상태에서 계측시 설치는 무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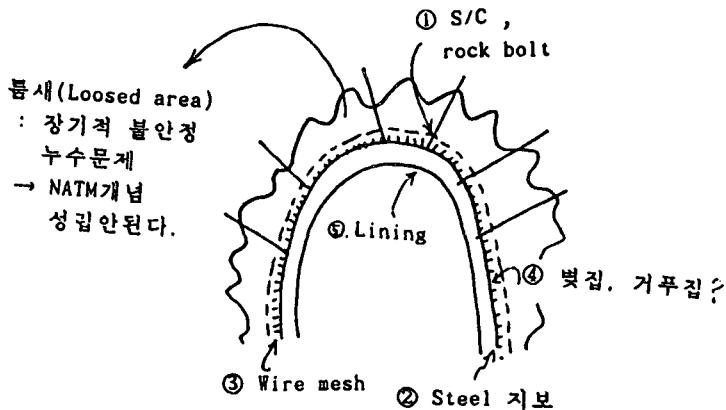
㉢ 올바른 설치위치 안되는 경우 있다.

㉣ 계측의 중요도 인식부족

*Feed
back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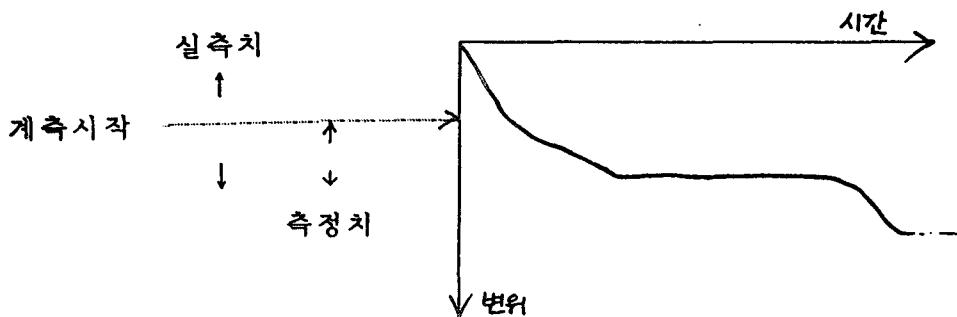
system rock bolt

Random rock bo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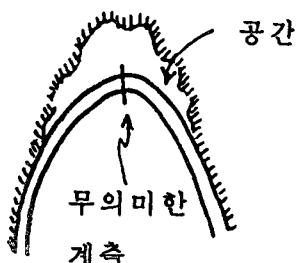
마. 계측자료의 신뢰도

(1) 실지 계측기 설치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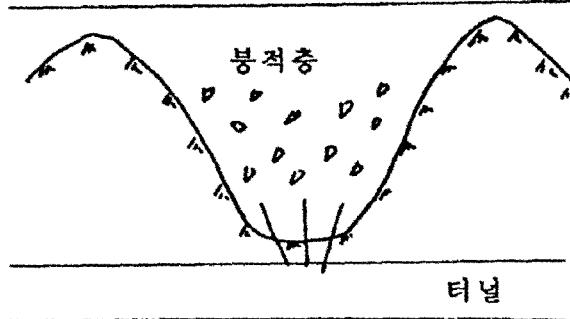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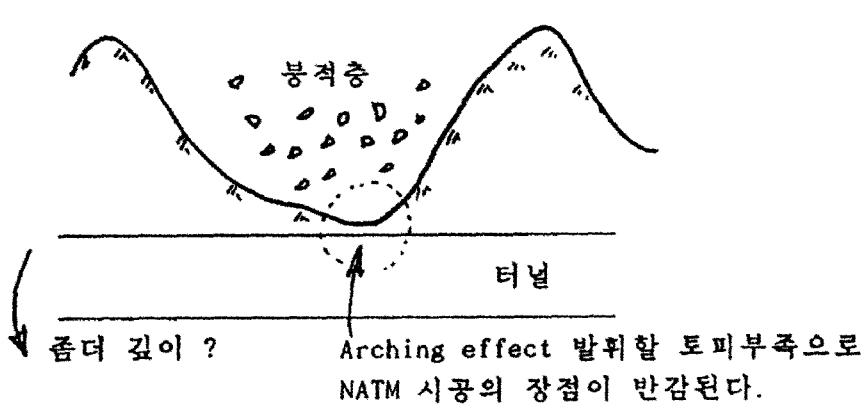
(2) 시공의 문제

- ① 시공문제
- ② 후속공정시 손상 및 계측차질



바. 설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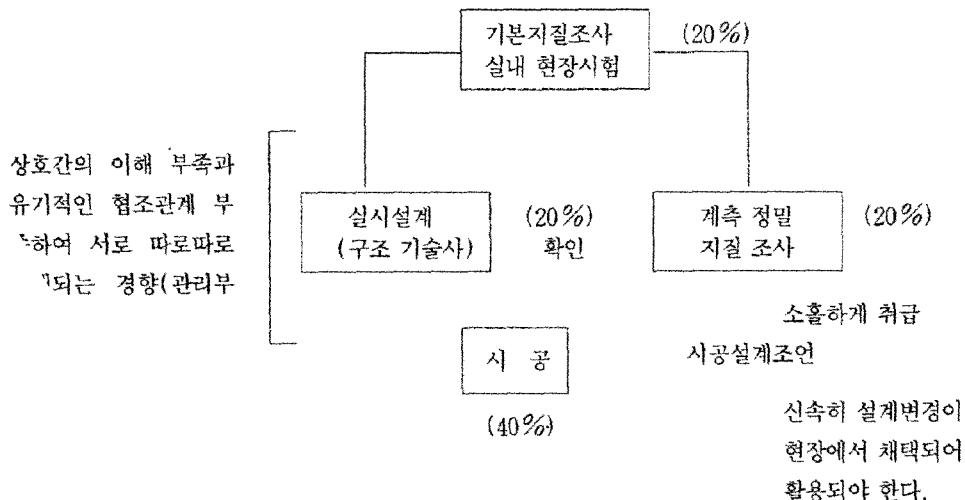
- 종단을 검토하여
- Arching effect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토피학보
- 일부 구간은 충격도를 지나고 있는 데 Grouting 공법등의 보조공법만으로 터널안정성 보장 가능 여부 검토
- 설계시 충분한 보강(R/B) 여유폭을 확보여부 확인 필요



- 주변지질 상태를 충분히 파악 못하고 설계시 설계의 rook bolt 길이대로 시공하면 충적층 들어서 물길을 내주는 격이 된다.

사. 유기적인 관계부족

조사, 설계, 시공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NATM의 효율적임.



마. 조직의 문제

- 현장의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과대한 책임 부여로 신속성과 유통성이 효율적으로 현장 대처 부족
 - 감리단 조직 : 토목기술자(토질, 안전, 구조)
터널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질』기술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공사현장의 지질 문제점 사전 파악 부족케 된다.
석유개발공사의 석유비축 터널, 수자원공사에는 시공 및 감리에 참여토록 조치되고 있다. 홍콩의 종합건설본부에는 지질기술자가 법적으로 대형토목공사의 감리에 참여. 서울시에는 지질전문조직이 전무한 상태 제도적인 명문화없이 시공, 감리시에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요구하면 불합리하고 적기에 문제해결하거나 시공품질관리가 어렵다.
 - 현재 감리는 시공감리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책임감리제』로서 감리의 권리, 의무를 확대시키는 것 고려
 - 감독, 감리, 공사과장들에게 우선적으로 터널공사에 미치는 지질구조의 영향 및 분석능력을 재교육 필요

석유개발공사의 석유비축 터널, 수자원공사에는 시공 및 감리에 참여토록 조치되고 있다. 홍콩의 종합건설본부에는 지질기술자가 법적으로 대형토목공사의 감리에 참여. 서울시에는 지질전문조직이 전무한 상태 제도적인 명문화없이 시공, 감리시에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요구하면 불합리하고 적기에 문제해결하거나 시공품질관리가 어렵다.

자. Face Mapping의 활용

- 외국에서는 Face Mapping 과 계측결과에 근거하여 미리 비상대기 체제 상태인 장비, 인력, 자재를 신속히 대처
 - 국내는 Face Mapping 의 인식부족과 계측에 따른 해석부족으로 사고 요인이 발생 크다. 또한 비상대기상태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와 같이 사고 예상되면 수배 체제로서는 적기에 보강 대처가 늦다.
그러므로 Face Mapping 철저 및 계측관리로 사고가능한 줄이고, 비상대기 체제의 필요성을 반감시켜서 『경비』가 절약된다.

차. 기준설정 필요

- (1) 터널공사를 위한 암반분류기준으로서 국내 지질특성에 부합되는 적용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 적용 기준사용 : 일본기준 RMR, Q)
 - (2) 현장계측 : 실험 많이하고 기준 자료 분석하여 국내 지질특성에 부합되는 자료 확보 시급 → 수치해석 및 RMR에 의한 설계가 보다 국내 지질특성에 부합되도록 노력
 - (3) 시추주상도, 암판정, 탄성파탐사 등등의 서울 지질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이 필요
 (예) 이암 (mudstone)의 연암 → TCR /RQD=100 /100
 경암 판단 오류 (?)
 황강암, 편마암의 경암 → TCR /RQD=50 /30
 연암 판단 오류 (?)

* 일축 압축강도를 정량적으로 간략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신빙성있게 현장에서 추정하는 암판정 강도실험이나 슈미트헤더 반발도 실험, 급속흡수율을 측정법.

Face mapping : 面積에 서의 챙길지점 조사

① 목적 : 블랙에서의 이상변위는 지질구조가 큰 원인이므로 터널보강.

② 장점 : 面積에서(면적)의 지질조사로 터널 안정성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

(체계 보강 pattern). 또한 부분적인 (sliding) 단층을 신속히

할 수 있다. -->

③ 전제적인 일반상태로서 실시 체계 표준단면과 만족하는가

부족한가 확인하여 보강 pattern 변경. 부분글자.

Face polling. 예타 보강대책 검구

④ 단층예상 (전체적인 체험구역) --> 전체 폭넓 보강

[결리는 벌파도 이완이 크고,

[단층사이의 점토층은 순식간에 계속으로 기다릴 시간전에

봉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F. N으로 마이하여 신속히 대응

⑤ 부분적인 낙반 예상 --> 부분 보강--> 보강설치 --> 변위 체

-->계속으로 치수에 확장

⑥ 지역 : Face mapping을 표지있게 시공에 올바로 반영하려면 “지침

상태”를 올바로 조사하여 지질구조가 미치는 터널의 인상성

여부를 조사. 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만 가능 --> 용융

지침 기술자 역할

⑦ 한계 : 속인으로 관찰하므로 어두운 터널안에서 또 간혹 shotcrete

때문에 또한 낙반으로 와현화서 절리나 단층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유통지침 전문가가라도 대표적인 경지. 단층인 대락

보개 되므로 간혹 위험 지질구조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00% 확인율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험위

부분은 계속으로 보완필요. 계곡과 상호 조화롭게 사용 요망.

⑧ 현장계속자의 상호 조작 :

· 계속의 빈도수를 높리면 Face mapping의 빈도수를 줄여도 되지만

‘증비’, 때문에 주로 대표단면에 서면 하지된다 -->그러므로 보완방법

으로서 대 막장마다 Face mapping을 이용하여 계속을 최소화한 범위

에서 운용도록 할 것

· 계속의 중요도는 인식되지만 현실체육은 상당한 제약이 있고, 계속

체계에 대한 이해 능력부족으로 중요도가 반감되고 있다.

· 계속은 Feed-back 시간이 지연되므로 현장의 신속한 보강대책 수립

에는 한계

· 계속기 설치 위치도 운용지침체계으로 위험에 예상되는 지점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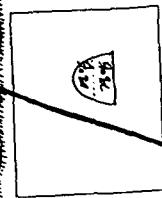
단하여 (지형, 지질도, Face mapping 지도활용) 설치되어야 한다.

⑤ 사용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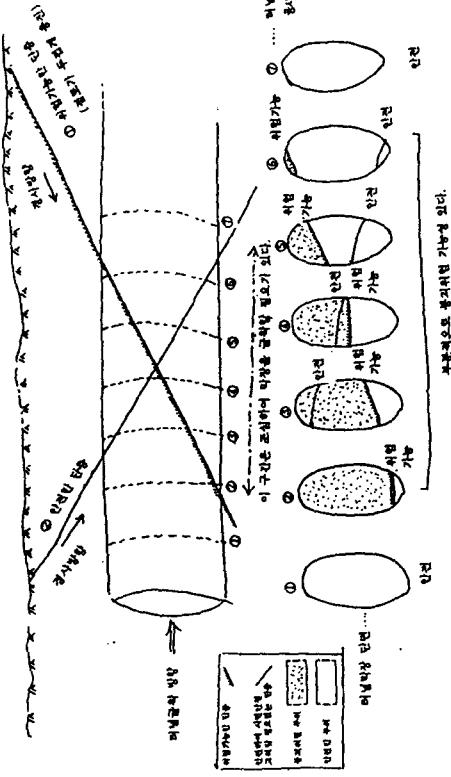
Face mapping의 자료를 Face 틈여서만 보자High and Low Point 차이로 지침상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여야 오만 방지

* 사용시 주의사항

터널 끝장에서 Face mapping으로 위험 단층을 파악하는 모식도.



* 터널 끝장에서 Face mapping으로 위험 단층을 파악하는 모식도.



* 터널 끝장에서 Face mapping으로 위험 단층을 파악하는 모식도.

: 같은 단층이라도 터널굴착 방향으로 향하여 경사진 단층(특히, 절트 층진단층)은 터널 천장이나, 터널굴착 바탕과 반대로 경사진 단층은 터널 천장이 있다. 그러므로 단층들이 터널 바탕과 나란나는가 물론 미리 터널 입구를 수령시켜 또는 Face mapping하여 단층의 존재 및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단층이 터널의 바탕굴착시에 위험요소로써 작용한 단층(주황, 경사)과 단층 출구의 충돌골착(첨모)의 특성과 주제동을 파악한다. 이들은 터널 악성, 암석벽, 터널굴착 털개(터널 굴착시 털개)로 Face mapping으로 Face mapping으로 일정으로서 시전에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